

# ‘오너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승진 책임경영체제·미래 신사업 탄력

## HD현대 사장단 인사

정 부회장, 1년만에 꺾속 승진  
친환경·디지털 혁신 주력 전망  
HD현대일렉트릭 등 인사 단행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11월 부회장에 오른 지 1년 만이다.

총수일가 3세 경영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미래사업 개척과 조직문화 혁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선 부회장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자,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다.

HD현대는 2024년 사장단 인사를 통해 정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다고 14일 밝혔다. HD현대에는 그룹내 처음으로 수석부회장 자리를 만들어 정 부회장을 승진시켰다. 회장에 오르기 전 경영 능력을 입증하는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

정기선 부회장은 그룹의 주요 핵심과제들을 직접 챙기고,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 혁신, 새로운 기업문화 확산 등을 주도해 나가는데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지주사인 HD현대는 현재 전문경영인인 권오갑 대표이사 회장과 정 부회장이 공동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정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오너 경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 부회장이 그룹 경영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건 2013년 현대중공업 경영기획팀 수석부장으로 입사하면서부터다. 앞서 2009년 대리로 입사했던 정 부회장은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뒤

컨설팅 업체에서 2년여간 근무하고 다시 현대중공업으로 입사했다. 2015년 기획실 부실장을 거쳐 2017년 부사장으로 승진, 2021년엔 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한편 이날 인사를 통해 HD현대일렉트릭 조석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조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맡아 흑자전환을 이끌었고, 현대중공업에서 처음으로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로 영입된 인사다.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에는 송명준 에이치디현대 재무지원실 부사장과 정임주 안전생산본부장이 공동으로 내정됐다.

HD현대삼호 대표이사에는 김재을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대표 부사장이,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에는 김영기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정 부회장을 비롯한 대표이사 내정자들은 향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정식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SDI가 13일 더블트리 바이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개최한 '2024년 삼성SDI 동반성장 DAY'에서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과 베스트 파트너사에 선정된 파트너사 대표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SDI

## 삼성SDI, ‘동반성장 데이’ 개최

### 최윤호 사장 “2030년 글로벌 톱 티어 성장”

동반성장 성과 공유... 10개사 시상

삼성SDI가 파트너사와 한자리에 모여 동반성장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동반성장의 의지를 다졌다.

삼성SDI는 지난 13일 더블트리 바이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삼성SDI 동반성장 DAY’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윤호 삼성SDI 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파트너사 우수 혁신 사례 소개, 2025년 동반성장추진 계획 발표순으로 진행됐으며 품질 및 기술력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 10개 사에 대한 베스트 파트너사 시

상이 이어졌다. 행사장 한편에는 파트너사 우수 제품과 삼성SDI 주요 제품 라인업 등을 함께 전시해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최 사장은 “삼성SDI는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파트너사의 혁신활동과 협력 덕분에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을 완성하고 GM과 현대차 외 다수 OEM의 수주를 확보하는 등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의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갖추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2030년 글로벌 톱 티어 회사’로 함께 성장하자”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10월 자동차 ‘생산·판매·수출’ 트리플 증가

생산 36.8만대... 전년비 7% ↑  
하이브리드차 수출액 신기록

지난달 자동차의 생산을 비롯해 내수·수출까지 3가지 부문 실적이 1년4개월 만에 동시에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1~10월 누적기준으로는 수출만 소폭 증가하고 생산·내수는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자동차 생산량(+7.8%)과 국내 판매량(+3.1%), 수출액(+5.5%)이 모두 전년동월에 비해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생산·내수·수출이 동시에 증가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생산은 +7%대로 가장 크게 늘어나 36만8000대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대

비 조업일수 증가(평일 기준 +1일)와 완성차 업계의 신차출시(기아 EV3·K8, KG모빌리티 액티언,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가 생산증가 요인으로 풀이된다.

내수 판매는 14만6000대로, 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내수 증가는 그랑 콜레오스(10월 판매량 5385대) 신차 효과에 더해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4만9000대(전년동월비 +50.3%)로 역대 월 판매 최고실적을 기록한 효과가 컸다.

수출은 5%대의 증가 폭을 보이며 62억 달러(물량 24만30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0월 수출액 중 최고 실적이다. 특히, 지난달 하이브리드차 수

출은 11억 달러(+80.3%)로 역대 최고를 갈아치웠다. 최근 하이브리드차의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1~10월 누적 수출액 역시 591억 달러(+2.0%)로 사상 최고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생산과 내수는 올해 10월까지 누적으로 각각 -2.7%, -7.0%를 기록했다. 내수의 경우, 국산(-8.2%)이 수입(-0.5%)보다 더 크게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11월 주요 자동차 업계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 등을 통해 수출의 온기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 LG엔솔, 美 테라젠에 8GWh 규모 ESS 공급

2026년부터 4년간 공급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Vertech)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Terra-Gen)과 최대 8GWh(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가 출범한 이후 거둔 최대 규모의 성과로 이를 통해 북미 시장에서의 시장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되었다.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는 지난 2022년 2월 미국 ESS 시스템통합(SI) 기업 NEC 에너지솔루션을 인수하며 출범한 ESS SI 전문 미국 법인이다. ESS 배터리 공급뿐 아니라 설계, 설치 및 유지·보수 등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

며 북미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번 계약 물량의 공급 기간은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다. 8GWh는 약 80만 가구(4인 기준)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공급되는 제품은 전량 북미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이 제품은 고용량 LFP(리튬-인산-철) 셀 ‘JF2 셀’이 적용된 컨테이너형 모듈러 제품인 ‘New Modularized Solutions’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용도 등에 따라 맞춤형 제품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ESS 성능을 분석하고 전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에어로스도 포함해 제공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 두산에너지빌-한전KPS, 가스터빈 사업 힘 모은다

기술 협력, 협의체 구성 등 MOU

두산에너지빌리티가 한전KPS와 협력해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발전·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와 ‘가스터빈 기술 협력 강화 및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 가스터빈 기술 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 ▲ 가스터빈 계획 정비 및 부품 공정 분야 협업 ▲

한국형 가스터빈 사업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 ▲ 정기적 기술 교류회 구축 및 개선사례 공유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은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국산화 과정에서 구축한 가스터빈 관련 기술이 한전KPS의 정비 기술, 전문 인력 등과 만나 해외 제3차 대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으로 국내 에너지 안보와 전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지난 13일 경기도 분당두산타워에서 열린 ‘가스터빈 기술 협력 강화 및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 협약(MOU)’ 체결식에서 (왼쪽부터)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 한전KPS 김도은 발전안전사업본부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 현대차그룹 신형 전기차, 글로벌 관심집중

美 뉴스위크, 아이오닉9·EV9 ‘2025 가장 기대되는 신차’ 선정

현대자동차그룹의 신형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14일 미국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 가장 기대되는 신차’에 아이오닉9와 EV9 GT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현대차와 기아의 전동화 기술력을 집약한 플래그십 전동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차 아이오닉9는 이달 말 미국에서 진행되는 아이오닉9 월드프리미어

행사를 통해 공개 예정인 모델이다. 티저 이미지를 통해 유려한 곡선으로 설계된 캐릭터 라인, 시그니처인 파라메트릭 픽셀 라이팅, 속도감과 역동성을 담은 멀티 스포크 휠 등을 공개한 이후 시장의 뜨거운 기대를 받고 있다.

기아 EV9 GT는 플래그십 대형 전동화 SUV EV9의 고성능 모델이다. EV9 GT는 ▲99.8kWh 대용량 배터리 ▲400/800V 멀티 초고속 충전 시스템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기능과 미래지향적이고 독창적인 내·외장 디자인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